



광주청년작가전 개막 2019 FINA 세계수영선수권 대회 개최 1주년을 기념해 광주일보가 주최하는 광주청년작가전 'DEEP DIVE INTO YOU'가 23일 광주 서구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갤러리에서 개막했다. 전시는 다음달 5일까지 진행된다. >관련화보 16면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전남 ‘한국판 뉴딜’ 이끌어달라”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광주·전남·북 공동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지역 주요현안 해결 및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행보를 본격화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김태년 원내대표, 박광온 최고위원, 김두관 차장은 지방정부위원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후덕 기재위원장, 정성호 예결위원장, 박흥근 예결위 간사 등 당 지도부와 서삼석 전남도당위원장이 자리를 함께했다.

민주당-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 개최...무슨 말 오겠나

광주시
감염병 전담병원 조기 설립
5·18역사왜곡특별법
군공항 이전 개정안 통과
인공지능 용역 국비 지원

전남도
대형 방사광가속기 추가 설치
전라선 고속철 국가계획 반영
해상풍력단지 조성 역점
전남권의과대학 설립

이해찬 당 대표 “지역 현안 정부 예산 반영 당 차원 노력”

이 시장은 “군공항은 국가안보시설이고 이전문제는 국책사업이며 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인데도 지난 수십년 동안 시민들에게 소음피해와 고통을 주었으면 정부가 미안함 마음을 가지고 하루빨리 옮겨야 하는데도 국방부를 포함하여 정부는 지자체에게 떠넘기고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시장은 이와함께 정부의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업이자 디지털 뉴딜의 핵심인 인공지능 시범도시를 광주에 조성하기 위한 용역비 40억원의 국비로 지원해 줄 것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이 외에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실효성 제고와 친환경 공기산업 육성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등 10여건에 대한 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하고, 내년도 국비사업에 대한 기획재정부 예산 심의와 관련해선 인공지능 중심 시범(실증) 도시 조성 등 25건 4564억원의 정부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광주형 뉴딜 사

업 등 광주의 현안사업들이 정부 예산 편성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당 차원에서 노력하고, 민간자본 투자유치, 맞춤형 인재양성 등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성공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한국판 뉴딜정책은 국가발전의 축을 지역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으로, 한국판 뉴딜의 핵심 투자처는 지역이 될 것”이라며 “광주가 창의적인 지역 성공사례를 만들어서 한국판 뉴딜을 이끌어달라”고 주문했다.

◇“대형 방사광가속기 추가 설치 해달라”=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날 당면 정책 12건과 내년 국고 현안사업 18건을 설명하고 당 차원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김지사는 “전남도의 블루이코노미는 한국판 뉴딜과 비전 전략이 일치해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에 전남에서도 적극 참여하겠다”며 특히 “해상풍력사업에 대한 정부육성계획에 대해 감사를 전하고 이를 위해 ‘공동 송

배선 선로’에 대한 50% 정도의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지사는 이어 “여수, 순천, 광양은 연간 2800만명의 관광객이 몰린 인기 있는 관광지지만, 전라선 고속철도가 없어서 매우 불편하다”면서 전라선 고속철도의 국가계획 반영을 건의했다.

여수 COP28 세계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 2차 공공기관 이전, 한전공대 특별법 및 인구소멸지역 특별법 제정 등 전남 핵심 정책현안에 대해서도 당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전북·전남 공동건의사항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재정분권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우선 1단계 재정분권에서 지방이 양면 균형발전특별회계 전환사업을 한시 규정 없이 지속보전하고, 지방이 실질적인 자주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적극 개선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해찬 대표는 “전남은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어 고무적이다”며 “해상풍력단지 조성은 정부의 한국판 뉴딜의 그린 뉴딜과도 부합하므로 좋은 기회를 맞아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역점을 두고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지사는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전남도가 앞장서겠다”며 “압도적인 투표율로 민주당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 준 200만 전남 도민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전남권 의과대학 설립 등 지역 현안이 해결된다면 지역민에게 값진 선물이 될 것이다”고 말하고 다시 한 번 더불어민주당의 지원을 당부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조직 내 갈등만 부르는 광주시 ‘이달의 공무원’

인사 인센티브에 공적 부풀리기·로비 등 부작용 속출

광주시가 민선 7기 들어 우수 공무원 발굴·격려를 위해 도입한 ‘이달의 공무원’ 제도가 오히려 조직 내 갈등과 불화만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부터 인사가점 등 인사상 우대 인센티브까지 추가되면서 공적 부풀리기와 상급자 대상 로비 등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는 등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2018년 8월부터 ‘혁신’, ‘소통’, ‘정량’ 등 시정가치 구현에 기여한 우수공무원을 ‘이달의 공무원’으로 선정하고 우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달의 공무원은 이용섭 광주시장의 성과를 낸 공직자를 선발하는 등 조직 내부에서 작은 영웅을 만들자는 취지로 직접 제안해 마련된 제도다.

이 제도를 통해 지금까지 총 25명의 공무원이 선정됐다. 매월 1명 또는 2명씩 선발하고 있으며 올 2, 3, 6월에는 적격자가 없어 선발하지 않았다.

7월에도 도시재생국과 일자리 경제실, 환경생태국에서 각각 1명씩 3명이 접수돼 24일 사전심사위원회 심의와 27일 선정심사위원회 심의 등을 앞두고 있다. 이달의 공무원으로 선정되면 시상금 100만원과 0.5점의 근무성적 실적 가점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시는 선발의 공정성을 위해 철저한 내부 검증 작업을 거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조직 내부에선 실적부풀리기와 국·과장급 간부들의 ‘제 사람 챙기기’ 등이 도를 넘어섰다는 말이 나온다. 또 이달의 공무원 신청자 중 일부는 직원들 사이에 평판이 좋지 못한 사례도 있다.

이번 7월의 공무원에 도전한 한 공무원은 황룡강 정류소까지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 사업이 국토부의 반대로 수개월째 답보 상태인데도, 전국 최초로 사회적 합의를 통한 지정에 기여했다는 공적서를 제출했다. 청정대기산업클러스터 관련 예산도 20억원을 확보한 상태에서, 마치 2005억원을 이미 확보한 것처럼 공적을 제시했다.

광주시에 한 공무원이 “이달의 공무원 중 우수한 공무원도 많지만, 시청내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저 사람은 아닌데’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며 “제도를 도입취지에 맞게 정비하고, 선발 절차를 강화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용섭 광주시장도 지난 6월 정례조 회에서 “이달의 공무원과 관련해 일부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추천서 간부들과 심사위원들이 깊게 검토하고 신경 써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아파트 민원, 주민 스스로 해결한다

광주시, 500세대 이상 278개 단지 봉사단 운영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갈등 요인과 현안을 직접 나서 해결하는 ‘아파트 봉사단’이 주목받고 있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500세대 이상 278개 모든 단지에 봉사단을 운영하기로 하고 올해 30개 아파트 봉사단을 구성하고 있다. 봉사단은 청소와 눈 쓸기 등 환경 정화, 주차 문제 해소·소음 줄이기, 돌봄센터 운영 등 활동을 하게 된다. 시는 3월부터 23개 아파트와 협약해 자원봉사 프로그램 컨설팅을 진행했다.

내방동 해태아파트 봉사단 김정순 회장은 “유치원 후원으로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이웃을 보고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어 맞벌이와 조손 가정 아동 돌봄 활동을 했다”며 “주민들이 현안을 주체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생활 공동체의 결속을 느꼈다”고 말했다.

시는 우수 프로그램을 아파트 정주 여건에 맞게 확산하고 참여를 원하는 단체가 활동하기 쉽도록 표준 지침도 만들기로 했다.

이정식 광주시 자치행정국장은 “지역사회, 주거 공간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야 하는 과정에서 나눔과 연대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내 삶이 하나 듯... 수목장은 보성 늘푸른입니다.

보성군 소재 (순천, 화순, 나주, 여수, 광양, 고흥군, 장흥군)

고객상담센터 062-412-2800

자연이 준 삶 자연으로 돌려주세요

세상이 변하듯... 장묘문화는 수목장이 대세입니다.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10기 이상 선산도 가능합니다.